

중·러 군용기의 KADIZ 침입이 야기한 문제들

- 2019 년 7 월 23 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두형(李斗炯, LEE DOO HYEONG)

신라대학교 항공교통관리학과 부교수(新羅大學校 航空交通管理系 副教授)

개요(Abstract)

1. 2019 년 7 월 23 일 중·러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 군용기가 아닌 러시아 군용기가 이례적으로 한국의 동해(東海)에 위치한 독도(獨島) 영공(領空)을 침범하였다.
2. 이를 계기로 일본은 다시 한 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 없이 종료한다고 결정하고,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하는 등 일본과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미국은 한국의 기대와는 달리 한·일 간 중립적인 입장에 있음을 재확인해 주었다. 이는 KADIZ의 기능이 단순히 타국 군용기에 대한 방공식별(防空識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주권과 외교 문제들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3. 한·중 군사 직통전화 추가 개설의 내용을 담은 《한·중 해·공군 간 직통전화 양해각서》 개정안 합의, 한·러 간 처음으로 양국 《해·공군 간 직통망 설치·운용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연장 종료를 결정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등 중·러 군용기의 KADIZ 침입이 야기한 문제들 중 일부는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못했을 지라도 일정 수준에서 봉합(縫合)되었다.
4. 중·러 군용기의 KADIZ 침입의 중심에 있던 중국은 한·일 간의 첨예한 대립과 미국의 모호한 태도를 지켜보며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취약점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확인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은 의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어부지리(鷸蚌相爭, 漁翁之利)를 한 셈이 되었다.
5. 시사점은 한국이 가능한 빨리 고래가 되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鯨魚爭鬥, 蝦米受傷)’는 역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은 경제력, 소프트파워(Soft power), 군사력 등 다양한 수단을 결합하여 계속해서 몸집과 근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Key Word(關鍵詞):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영공(領空), 동해(東海), 독도(獨島), 직통전화(hot line)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동해영토수호훈련(East Sea Territory Defense Exercise).

1、 서언(前言)

2019 년 7 월 23 일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와 정찰기가 동시에 한국방공식별구역(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ADIZ)을 침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용기는 이례적으로 한국의 독도(獨島) 영공(領空)을 침입하였다. 타국의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입한 후 한국의 영공을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한반도에서 정치·군사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KADIZ 를 침입하여 각종 군사정보 수집 활동을 하였으나, 이번과 같이 양국 군용기가 동시에 침입한 것 역시 처음이다. 한국 합동참모본부(Joint Chiefs of Staff)는 2019 년 “7 월 23 일에 중국 H-6 폭격기 2 대와 러시아 Tu-95 정찰기 2 대가 (한국의) 동해(東海, East Sea) KADIZ 와 JADIZ(Jap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침입했다가 이탈하기를 반복하였고, 이 과정에서 별도의 러시아 A-50 군용기 1 대가 KADIZ 내에 위치한 독도(獨島) 영공을 두 차례 7 분간 무단 침범했으며, 이에 대응하여 한국 공군의 F-15K 와 KF-16 등 전투기가 출격하여 차단 기동, 플레어(Flare) 투하 및 2 차례의 경고 사격을 하였다” 고 밝혔다.¹

공해(公海, international waters) 상에 설치된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은 현재까지 성문화된 국제법적인 법원(法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타국이 ADIZ 를 침입했을 경우 이를 두고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국제법 위반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² 그러나 2019 년 7 월 23 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KADIZ 를 침입했을 때 한국군이 전투기를 출동시켜 이를 식별하지 않았다면 ADIZ 침입에 이어 곧 바로 독도(獨島)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대해 실시간으로

¹ 대한민국 국방일보 (dema.mil.kr), <중·러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 과 영공 침입>, 《국방일보》, 2019. 07. 29.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190725/23/BBSMSTR_000000010026/view.do

² 《유엔해양법》은 국제적인 갈등과 관습법에 대해 국제기구가 개입하여 유엔회원국이 공동으로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법률로 성문화한 결과물이지만,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을 법원으로 하지 않고 각국이 국내법에 법원을 두고 일방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성문화된 국제법이나 국제관습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에서는 대항국간 수역이 400 해리를 확보하지 못해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어 있고 이에 따라 방공식별구역도 중첩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국 간에 군사협정을 체결하여 자국 군을 통제하고 있다. 권종필, 이영혁, 〈한국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에 관한 고찰〉, 《航空宇宙政策. 法學會誌》第 32 卷 第 2 號, 2017 年 12 月 30 日. pp. 205-206.

대응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ADIZ 는 이를 설치하는 국가의 국방 안전 수호에 매우 유용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2019 년 7 월 23 일 중·러 군용기의 KADIZ 침입을 두고 야기된 일련의 문제들, 예를 들면 중국 군용기가 아니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의 독도 영공을 침범한 예상치 못한 사태, 이를 기회로 다시 한 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그리고 이어서 벌어진 한·일 간의 첨예한 대립, 한·일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한국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중립적인 입장을 재확인해 준 미국 등은 KADIZ 의 기능이 단순히 타국 군용기에 대한 방공식별(防空識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주권과 외교 문제들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2019 년 7 월 23 일 중·러 군용기의 KADIZ 침입이 어떠한 문제들을 야기하였고 또 그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며, 끝으로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2. 방공식별구역(ADIZ)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동서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구소련(舊蘇聯)의 폭격기들이 알래스카를 넘어 미국 본토를 공격할 것에 대비하여 1950 년에 최초로 방공식별구역(ADIZ)을 설정하였다. 현재는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스웨덴, 필리핀, 대만, 인도,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25 개 국가가 ADIZ 를 설정하여 운영 중이다. ADIZ 의 법적 정당성은 각국이 영토와 영해의 상공인 영공(領空)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데, 기술의 발달로 비행물체들의 속도, 능력이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구역의 범위 내에서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제약이 많아 공해상에서 연안 국가 또는 내륙 국가가 정찰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국제법 위반이 아니지만³ 안전보장 측면에서 사전 경보를 제공하기 위해 ADIZ 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이론에서 찾고 있다.⁴ ADIZ 는 국제적인 인정을 위한 국제법 수립 논의 등의 조치가 현재까지 없어 성문화된 국제법적인 법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DIZ 를 운영하고 있는 각 국이 자국의 국내 법규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제법규

³ 김한택, 〈공해의 상공 비행에 관한 국제법〉, 《航空宇宙政策. 法學會誌》第 26 卷 第 1 號, 2011 年 6 月 3 日, pp. 4-12., 同前註 2. 권종필, 이영혁, 〈한국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에 관한 고찰〉 p. 192.

⁴ Ruwantissa Abeyratne, "In search of theoretical justification for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s", Journal of Transportation Security, Volume 5, Issue 1, 2012, pp. 87-94. 同前註 2. 권종필, 이영혁, 〈한국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에 관한 고찰〉 p. 192.

중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의 규칙(DOC 9426, ATS Planning Manual) 제 3 장에는 특별지정구역이 존재하며, 이 구역에서는 특별한 식별과 보고절차들과 같은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추가적으로 따르도록 요구되는 지정된 구역이 있는데, 그 일반적인 것이 ADIZ 이며, 이 구역에서 부과된 지시에 복종하지 않으면 신속히 공격적 행위(요격, 불시착 등)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⁵ 이 조항을 보면 ADIZ 가 국제적으로 누구나 인지하는 특정구역으로 묵인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것이 일정 부분 국제 관습으로 정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국제규칙이라 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ADIZ 의 성립 과정을 보려면 각 국가별 설정 법원, 운영절차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⁶

(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최초의 KADIZ 는 법령에 의해 설치된 것이 아니라 1950 년 6 월 25 일 발발한 한국전쟁 중 유엔군사령관이 1951 년 3 월 22 일 북한의 미그(Mig) 전투기 출현에 대한 경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였고, 그 범위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중간선 원칙에 따라 한정되었다. 남쪽 방면은 당시 미그(Mig) 전투기의 비행 가능 거리 및 북한 해군의 능력과 영해에 대한 국제적인 관습인 3 해리(海里)를 고려하여 그 범위를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⁷ 이러한 KADIZ 가 법령에 의해 국내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것은 2007 년 7 월 28 일 공포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부터 이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은 KADIZ 를 “국가 안전보장 목적상 항공기의 용이한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가 요구되는 지상 및 해상의 일정 구역으로서 제 9 조에 따라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⁸ KADIZ 의 범위는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며 <그림-1>, <그림-2>에서 보듯이 영해(領海, Territorial waters)와 접속수역(接續水域, Contiguous zone)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나,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과 대륙붕(大陸架, continental shelf) 지역은 제외된 구역이 많다.

⁵ ICAO DOC 9426, 《ATS Planning Manual, 3.3.4 특별 지정 구역》, 1984, p. I-2-3-4., 同前註 2.

권종필, 이영혁, 〈한국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에 관한 고찰〉 p.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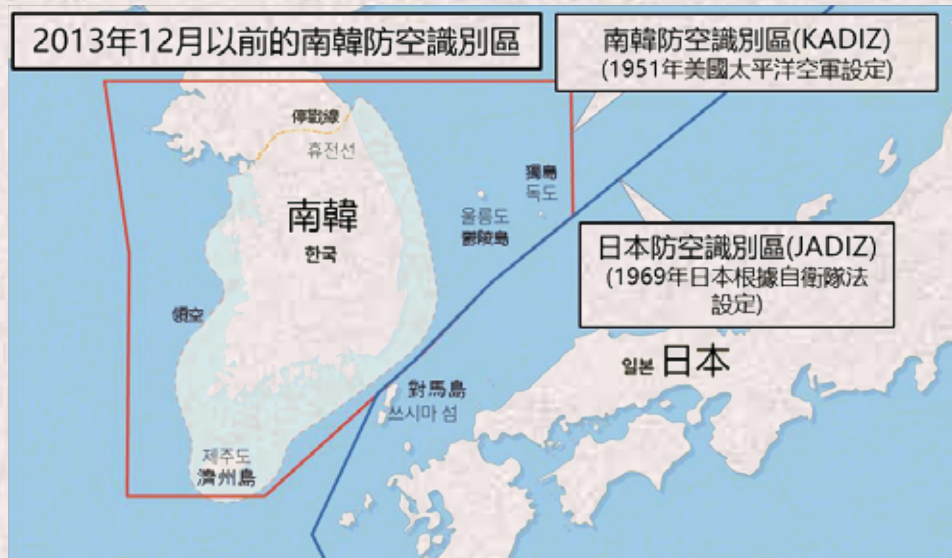
⁶ 同前註 2. 권종필, 이영혁, 〈한국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에 관한 고찰〉 p. 193.

⁷ 최용만, 권종필,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 조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에이스(ACE)》

제 137 호, 공군본부, 2016, p. 23.

⁸ 同前註 2. 권종필, 이영혁, 〈한국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에 관한 고찰〉 p. 193.

법률에서 정한 핵심 규칙은 KADIZ 를 입·출항하는 모든 항공기는 사전에 합참의장(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에게 비행계획을 제출해야 하지만, 민간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비행계획서(Flight Plan)를 제출하는 경우에 예외로 하고 있다. 또한 KADIZ 를 이탈할 경우에는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에 따라 합참의장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⁹



<그림-1> 2013 년 12 월 15 일 이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 자료 출처: <‘準영공’ 日방공식별구역에 독도는 없다>, 《동아일보(東亞日報)》, 2008-08-01.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080801/8610282/1> <검색일자> 2022.5.22.
 저자가 그림 내부의 한글 표기를 中文으로 번역하여 표기하였음.

2013 년에 이르러 한국 정부는 2013 년 12 월 15 일 14 시부로 KADIZ 를 확장하여 발효하였다. 확장한 내용을 보면, 국제관례와 국제법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제주도 남방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IFIR)과 경계를 같이하도록 변경하였다. 특히 그동안 전라남도 홍도(紅島)와 제주도 마라도(馬羅島)의 영해 일부가 KADIZ 밖에 있던 것을 안으로 들어오도록 시정하였고, 제주도 남방 이어도(離於島)¹⁰ 수역의 관할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어도(離於島)를 포함하도록 확장하였다. 이를 분석해보면 비록 주변국의

⁹ 同前註 2. 권종필, 이영혁, 〈한국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에 관한 고찰〉 p. 194.

¹⁰ 이어도(離於島): 離於礁, 영어로 Socotra Rock(Reef). 중국은 苏岩礁(蘇岩礁)로 부른다. 등수심선 50m 를 기준으로 길이는 남북으로 1800m, 동서로 1400m, 면적 약 2km²의 암초이며, 동중국해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馬羅島에서 남서쪽으로 약 149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ADIZ 와 중첩되지만 주변국과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한국의 국가이익을 최대한 보장하였고, 한국이 관할하는 수역 중 일부 수역의 상공에 KADIZ 를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근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경계선을 주변국이 주장하는 경계선을 넘어 확장한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¹¹



<그림-2> 2013년 12월 15일 이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 자료 출처: <[팩트체크] 방공식별구역 침범? 진입? 어느 쪽이 맞나>, 《연합뉴스(韓聯社)》, 2019.10.31. <https://www.yna.co.kr/view/AKR20191031145000502>, <검색일자> 2022.5.22.
저자가 그림 내부의 한글 표기를 中文으로 번역하여 표기하였음.

(二) 외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¹¹ 同前註 2. 권종필, 이영혁, 〈한국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에 관한 고찰〉 p. 194.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5 개국에서 ADIZ 를 운영하고 있다.¹² 미국은 《연방항공법(49 USC §40103 b(3))》에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청장이 국가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일정 구역을 설정하여 식별, 추적 및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토로부터 최대 600 해리 이상 이격하여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상공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이하게 내륙인 워싱턴디시(Washington, D.C) 상공에도 ADIZ 를 설정하여 2 중으로 운영하고 있다. 운영규칙은 항공기의 국적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항공기는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위치 보고와 비행계획서(Flight Plan)를 제출하여야 하며, 규칙을 고의로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 만 달러의 벌금 또는 1 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³

일본은 《방위청 훈령》 제 36 호에 근거하여 1969 년 9 월 1 일부터 내곽 방공식별구역(Inner ADIZ, 영토로부터 약 100km 이내)과 외곽 방공식별구역(Outer ADIZ, 400~600km 이내)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1972 년에는 《방위청 훈령》 제 36 호의 일부 개정 훈령 제 11 호를 통하여 오키나와(Okinawa) 방면을 추가하여 외곽 방공식별구역(Outer ADIZ)을 확장하였다. 이 외곽 방공식별구역(Outer ADIZ)은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이 발효되어 영해의 범위가 3 해리에서 12 해리로 확장됨에 따라 한국의 영해를 일부 침범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한국은 일본에게 ADIZ 의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¹⁴

중국은 《中華人民共和國國防法》, 《中華人民共和國民用航空法》과 《中華人民共和國飛行基本規則》에 근거하여 2013 년 11 월 23 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東海防空識別區, East China Sea ADIZ)」을 선포하여 운영 중에 있다. 최초 선포 시에는 중국에 착륙하지 않는 통과 항공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에 대해 비행계획서(Flight Plan) 제출을 의무화하고,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긴급방어조치(Emergency Defense Measures)”를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상의 공해상 비행의 자유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칙에 따라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력사용의 금지원칙을 적용하였는지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2016 년에 동(同) 문구는 삭제된 상태이다.¹⁵

¹² 대한민국 국방부, 《전쟁법 해설서》 대한민국 국방부, 2013, p. 126.

¹³ 同前註 12. 대한민국 국방부, 《전쟁법 해설서》, p. 128.

¹⁴ 同前註 2. 권종필, 이영혁, 〈한국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에 관한 고찰〉 p. 195.

¹⁵ 同前註 2. p.195. 1984 년 대한항공(KE)007 편이 소련 영공 침범 혐의로, 소련 전투기의 발포로

3、 중·러 군용기의 KADIZ 침입이 야기한 문제들

이제 본 연구의 중심 주제인 2019 년 7 월 23 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침입이 야기한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3> 중·러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입 경로(2019.7.23.)

· 자료 출처: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 ... 軍, 전투기 띄워 경고사격>, 《한겨레(韓民族日報)》, 2019.7.23. <https://www.hani.co.kr/arti/PRINT/903065.html> <검색일자> 2022.5.22. 저자가

추락하여 승객 전원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ICAO Annex 11 《Rules of Air》에는 민간 항공기에 대해서는 무력사용 금지 원칙이 반영되어 있다.

그림 내부의 中文으로 번역하여 표기하였음.

2019 년 7 월 23 일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7 월 23 일 동해(東海) 독도(獨島) 인근 영공을 침범한 군용기 1 대는 중국 군용기가 아니라 러시아 군용기이며 A-50 조기경보통제기라고 밝혔다. 타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한국 공군 전투기는 한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A-50 전방 1 km 거리로 360 여발의 경고사격을 가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 KADIZ 를 침범한 군용기는 중국 H-6 폭격기 2 대, 러시아 TU-95 폭격기 2 대와 A-50 조기경보통제기 1 대”라고 밝혔다. 한국 공군 전투기는 KADIZ 를 무단 침입한 중국 폭격기에 대해 20 여회, 러시아 폭격기와 조기경보기에 대해 10 여회 등 30 여회 무선 경고 통신을 했으나 응답이 없었다. 한국 공군 전투기는 특히 독도(獨島) 인근 영공(領空)을 침범한 러시아 A-50 을 향해 1 차 침범 때 미사일 회피용 플레어(flare) 10 여발과 기총 80 여발을, 두 번째 침범 때는 플레어(flare) 10 발과 기총 280 여발을 각각 경고 사격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타국 군용기가 우리(한국) 영공을 침범한 사례는 처음”이라면서 “KADIZ 를 진입한 타국 군용기 전방 1 km 근방으로 경고 사격을 한 사례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KADIZ 에 진입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전했다.¹⁶

(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친중(親中)’ 논란 가중

한편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19 년 7 월 23 일 정례 브리핑에서 “구체적 상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방공식별구역(ADIZ)은 영공이 아니며 국제법에 따라 각국은 비행의 자유를 누린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다는 지적에 대해 “중국과 한국은 좋은 이웃으로 ‘침범’이라는 용어는 조심해서 써야 한다”고 하였다.¹⁷

이에 대해 한국의 여·야(執權黨·在野黨) 정치계와 언론들은 한 목소리로 중국을 비판하였다. “중국은 자국 연해에서 정찰 비행을 하지 말라고 미국에 여러 차례 요구한 적이 있다. 지난 2017 년 7 월에도 미국 정찰기가 한반도 서해(西海) 인근을 비행하자 자국(중국) 전투기로 초 근접 비행을 하며 전방을 가로막아 미국의 항의를 받았다. 중국 외교부는 당시 미국 군용기가 중국의 연해를

¹⁶ 김귀근, <합참 "러 A-50 조기경보기, 영공침범 ... 軍, 360 여발 경고사격">, 《연합뉴스》, 2019.7.23.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3101300504>

¹⁷ 김윤구, <中, 자국 군용기 KADIZ 무단진입 후 "비행의 자유 있다" 주장(종합)>, 《연합뉴스》, 2019-07-23.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3139751083?site=footer_pc_version

정찰하는 것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이런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따라서 비행의 자유를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반박하였다.¹⁸

이렇듯 중·러 군용기가 KADIZ 를 침입했을 때 한국의 정치계는 여·야(執政黨·在野黨)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중·러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중·러 군용기가 KADIZ 를 침입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또 일상화되면서 여·야가 중·러를 비판하는 강도에는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 중·러 군용기의 KADIZ 침입 횟수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요지는 당시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에 대한 ‘친중(親中)’ 논란이었다. 문재인(文在寅) 정부는 임기 내내 ‘친중(親中)’ 논란에 휩싸였다. 중국에 대한 사대(事大) 굴종(屈從)으로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있고, 반면에 근거 없는 ‘친중(親中)’ 물이는 위험하다는 반론도 있다.¹⁹ 이러한 가운데 중국 군용기의 KADIZ 침입은 문재인 정부의 ‘친중(親中)’ 논란을 일정 부분 가중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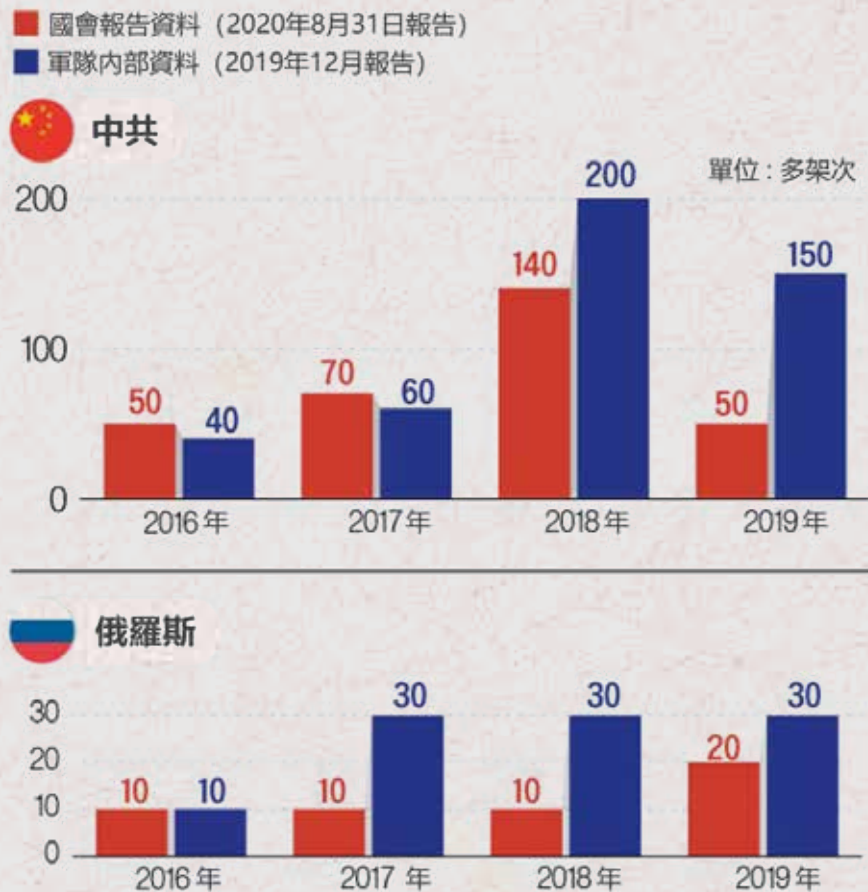
대표적인 예로서 2020 년 10 월 8 일 한국의 일간지 《중앙일보(中央日報)》는 <中 군용기 KADIZ 침입, 100 회나 줄여서 공개한 문재인 정부>라는 제하의 기사를 다음과 같이 단독 보도하였다. 「軍이 문재인 정부 동안 일어난 중국 군용기의 KADIZ 침입 횟수를 대폭 축소하여 공개한 정황이 (2020 년) 10 월 7 일 확인되었다. 한기호(韓起鎬) 국민의힘(People Power Party, 國民力量黨) 국회의원이 軍의 국회 보고자료와 軍 내부 비밀자료를 비교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많게는 연간 침입 횟수가 100 여회까지 차이가 났다. 이를 두고 軍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침입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을 피하기 위해 눈치 보기를 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한기호(韓起鎬) 국회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6~2019 년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연간 ‘KADIZ 진입 현황’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는 2016 년과 2017 년에 각각 50 여회, 70 여회 KADIZ 안으로 들어왔다. 이어 2018 년에는 140 여회로 침입 횟수가 훌쩍 늘었고, 지난 해인 2019 년에는 50 여회로 다시 줄었다. 하지만 2019 년 12 월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軍

¹⁸ 同前註 17. 김윤규, <中, 자국 군용기 KADIZ 무단진입 후 “비행의 자유 있다” 주장(종합)>., 《매일경제》, 2019/07/23 <https://m.mk.co.kr/news/world/view-amp/2019/07/557001/>

¹⁹ 문재인(文在寅) 정부는 친중(親中)이 아니라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참조할 수 있다. 박민희, <문재인 정부는 ‘친중’인가?>, 《한겨레》, 2020-08-25.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59268.html>, 홍제표, <[한반도 리뷰]문재인 정부는 과연 ‘친중’인가>, 《노컷뉴스》, 2022-02-23. <https://www.nocutnews.co.kr/news/5711770>

내부자료의 수치는 이와 크게 달랐다. 2016 년과 2017 년의 경우 각각 40 여회와 60 여회로 오히려 국회 공개자료보다 10 여회씩 적었다. 반면 2018 년에는 공개자료보다 60 여회 많은 200 여회, 지난 해인 2019 년에는 100 여회 많은 150 여회로 기록되어 있다. 2019 년의 경우 3 배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런 수적 차이는 러시아 군용기와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두 자료에서 러시아 군용기의 연간 KADIZ 침입 횟수는 거의 같거나 10~20 여회 정도 차이에 그쳤다. (중략) 익명을 원한 군 관계자는 “2018 년을 기점으로 수치가 축소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지향점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군사적으로 민감한 KADIZ 침입 횟수조차 중국 눈치 보기를 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²⁰



<그림-4> 중·러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입 횟수

· 자료 출처: <[단독] 중군용기 KADIZ 침입, 100 회나 줄여서 공개한 文 정부>, 《중앙일보(中央日報)》, 2020.10.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89024#home>, <검색일자> 2022. 5.22.

²⁰ 김상진, 이철재, 박용한, <[단독] 중군용기 KADIZ 침입, 100 회나 줄여서 공개한 文 정부>, 《중앙일보》, 2020.10.0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89024#home>

저자가 그림 내부의 한글 표기를 中文으로 번역하여 표기하였음.

반면, 《중앙일보》는 중·러 군용기의 KADIZ 침입 횟수를 문재인(文在寅) 정부가 고의로 축소한 것이 아니라 한국 공군이 정찰기를 도입하기 위해 소요(所要)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일 수 있다는 취지의 기사도 함께 실었다. 「軍 내부자료에서 중국 군용기 침입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기록된 것은 軍의 전력증강 소요 제기와 관련이 있다는 풀이도 나온다. 2019 년 당시 국방부 전력소요검증위원회에 제출된 해당 軍 내부자료에서는 “중·러 군용기의 KADIZ 진입 현황은 (연평균) 137 회로서, 3 일 간격으로 한국군 정찰기 2 대가 동시에 소요된다”고 정찰기 증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 軍은 지난 2020 년 6 월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정찰기 증강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합동참모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관련 사안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만 밝혔다.」²¹

(二) 독도 영공 침범으로 되살아난 러시아의 위협

한국 국민들은 ‘영공 침범’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전신인 구소련(舊蘇聯) 소비에트연방(Soviet Union)에 대해 너무나도 아픈 기억이 두 가지 있다.

먼저 1978 년 4 월 20 일 파리를 출발하여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경유한 뒤 서울로 도착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KE) 902 편 보잉(Boeing) 707 여객기가 항법 상의 실수로 앵커리지 대신 소련 영공을 침범하여 카렐리아 공화국(Republic of Karelia) 상공에서 격추당한 뒤 불시착한 사건이다. 이 사고로 탑승 인원 109 명 중 2 명이 사망하였고, 나머지 승객들은 조사를 마친 후 별 일 없이 핀란드 헬싱키를 통해 귀국했다. 소련은 10 만 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지불하지 않았다.²²

두번째는 대한항공(KE) 007 편 격추 사건으로, 1983 년 9 월 1 일에 미국 뉴욕시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 앵커리지를 경유해서 김포국제공항으로 오던 대한항공(KE) 소속의 007 편 보잉(Boeing) 747 여객기가 비행 중 소련 영공에서 Su-15 전투기의 공격을 받아 사할린(Sakhalin) 서쪽에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숨진 사건이다. 이

²¹ 同前註 20. 김상진, 이철재, 박용한, <[단독] 中군용기 KADIZ 침입, 100 회나 줄여서 공개한 文 정부>.

²² <대한항공 902 편 격추 사건>, 나무위키 (namu.wiki),

<https://namu.wiki/w/%EB%8C%80%ED%95%9C%ED%95%AD%EA%B3%B5%20902%ED%8E%B8%20%EA%B2%A9%EC%B6%94%20%EC%82%AC%EA%B1%B4>

사건으로 래리 맥도널드(Larry McDonald) 미국 조지아주 민주당 하원 의원을 포함한 16 개국 269 명의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였다. 비무장 여객기에 대한 소련 전투기의 공격으로 인한 격추 사건은 한국 및 서방 국가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왓카나이시(稚内市)의 최북단 소야곶(宗谷岬)에 위치한 소야미사키공원(宗谷岬公園)에는 당시 사고로 사망한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비 ‘추도의 탑(祈りの塔)’이 서 있다.²³



<그림-5> KE007 편 격추사건 희생자 위령비

· 자료 출처: <대한항공 007 편 격추 사건>, 나무위키(namu.wiki),
<https://namu.wiki/w/%EB%8C%80%ED%95%9C%ED%95%AD%EA%B3%B5%20007%ED%8E%B8%20%EA%B2%A9%EC%B6%94%20%EC%82%AC%EA%B1%B4> <검색일자> 2022.5.10.

이 사건을 계기로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미국 대통령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민간 부분에 개방할 것을 공표하였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민간 항공기를 요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무기를 쓰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다음 해인 1984 년, 국제 민간 항공 협정(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을 개정하여 영공을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민간 항공기를 격추하지 못하도록

²³ <대한항공 007 편 격추 사건>, 나무위키 (namu.wiki),
<https://namu.wiki/w/%EB%8C%80%ED%95%9C%ED%95%AD%EA%B3%B5%20007%ED%8E%B8%20%EA%B2%A9%EC%B6%94%20%EC%82%AC%EA%B1%B4>

명시하였다.²⁴

다시 2019 년 7 월 23 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침입 사례로 돌아오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러의 KADIZ 침입 횟수는 자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중국 군용기의 침입 횟수가 러시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2018 년과 2019 년이 두드러지는데, 2018 년의 경우 軍 내부자료를 기준으로 중국이 러시아보다 170 여 회가 많고, 2019 년의 경우는 120 여 회가 많다. 따라서 한국군은 러시아보다는 중국 군용기의 KADIZ 침입에 민감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도 보다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은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 군용기였다.

2019 년 7 월 24 일 한국의 총통부(總統府)인 청와대(靑瓦臺)는 “러시아 정부는 자국 군용기가 7 월 23 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영공을 침범한데 대해 한국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靑瓦臺) 국민소통수석은 “러시아 국방부가 즉각적으로 조사에 착수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왔으며”, 러시아 차석 무관(武官, military attaché)은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국 측이 가진 영공 침범 시간, 위치 좌표, 캡처 사진 등을 전달해주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²⁵ 이렇듯 이 사건은 러시아의 깊은 유감 표명으로 잠잠해 지는 듯했다.

그러나 다음날 러시아 국방부는 “외국 영공을 침범한 바 없다. (중략) 한국 전투기가 위험한 차단 기동을 했다”며 한국 정부의 발표와는 다른 엇갈리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러시아 국방부는 2019 년 7 월 25 일 공보실 명의의 언론 보도문을 통해 “7 월 23 일 러시아 공군과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이 장거리 군용기를 이용해 아시아태평양 해역에서 첫 연합 공중 초계비행을 수행했다. 임무 수행 과정에서 양국 공군기들은 관련 국제법 규정들을 철저히 준수했다. 객관적 비행 통제 자료에 따르면 외국 영공 침범은 허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7 월 25 일 모스크바 주재 한국 공군 무관을 국방부 청사로 불러 자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전투기 조종사들이 자국 군용기의 비행 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이고 위험한 기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항의성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항공우주군 장거리 항공대 사령관도 이날 《타스(Tass) 통신》에 “객관적 비행 통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영공 침범은 허용되지 않았다. 분쟁 도서(獨

²⁴ 同前註 15.

²⁵ 박경준, <러시아 “기기 오작동, 침범 의도 없었다. 깊은 유감 표명>, 《연합뉴스》, 2019.7.24.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4078252001>

島)에 가장 가까이 근접한 군용기와 도서 간 거리는 25km 였다”면서 “한국 조종사들의 행동은 공중 난동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오히려 한국 공군의 차단 기동을 비난했다. 이에 한국 국방부는 다시 “러시아 측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어제 외교 경로를 통해 밝힌 유감 표명과 정확한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7 월 23 일 오전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 1 대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한국 국방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자국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실을 인정한 바 없다면서 청와대 측 발표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반박하고 나섰다. 러시아 대사관은 이날 트위터(tweeter) 공식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표와 관련한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러시아 측은 러시아 항공우주군 소속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모스크바 고위 외교소식통은 “러시아가 설령 실제로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러시아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영공 침범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²⁶

(三)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일본

독도(獨島) 분쟁은 독도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그렇지 못한 일본의 극우들이 그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발생한 영토 분쟁을 일컫는다.²⁷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영토 분쟁은 없으며, 분쟁이란 단어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²⁸ 독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동해(東海)에 위치해 있고,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를 중심으로, 주변의 암초 등을 포함한 총면적 187,554m²이며, 현재 한국의 실효 지배 하에 있다.²⁹

2021 년 2 월 22 일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가 파견된 가운데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마쓰에시(松江市)에서 개최된 「다케시마(竹島, 일본이 주장하는 獨島의 일본 명칭)의 날(竹島の日)」 행사에서는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국제사회에 분쟁

²⁶ 유종철, <러시아 군용기 한국 영공 침범 두고 한-러 엇갈린 주장 지속>, 《연합뉴스》, 2019.7.25.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4179751080>

²⁷ “Japan’s Consistent Position on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Takeshima”,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https://www.mofa.go.jp/region/asia-paci/takeshima/index.html>

²⁸ 대한민국 외교부(mofa.go.kr), <독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 《독도》, https://dokdo.mofa.go.kr/kor/dokdo/government_position.jsp

²⁹ <독도분쟁>, 위키백과(wikipedia.org),

https://ko.wikipedia.org/wiki/%EB%8F%85%EB%8F%84_%EB%B6%84%EC%9F%81#cite_note-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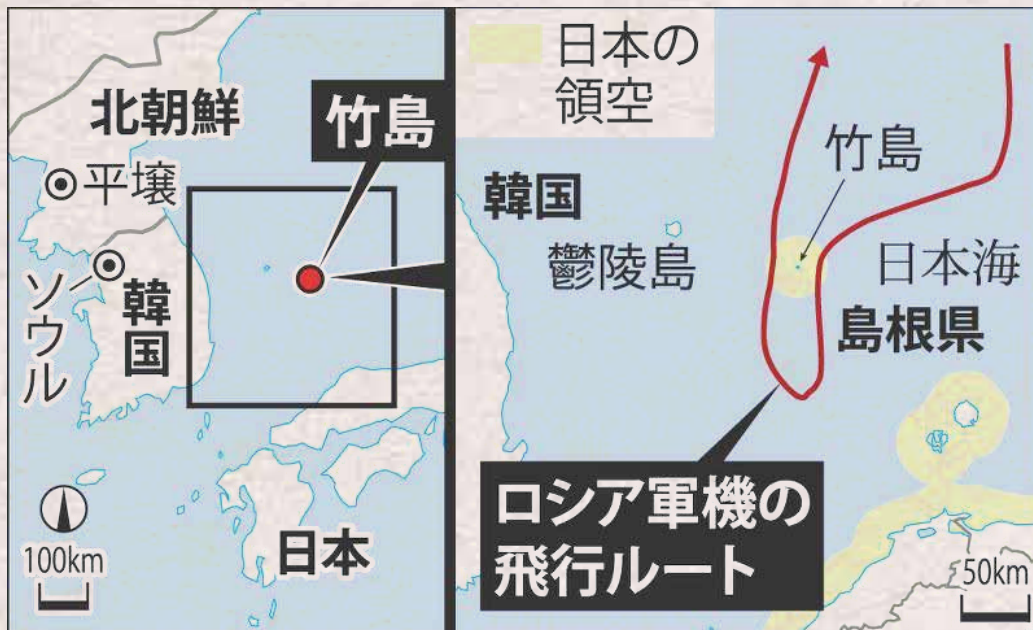
지역으로 인식시키려는 일본의 야욕이 다시 노출됐다. 일본은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주장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이런 주장을 담은 콘텐츠(content)를 유포하는 작업을 병행해오고 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현(島根縣) 등의 주최로 열린 이날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 행사에 참석한 와다 요시아키(和田義明)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의 발언에서는 일본의 이런 의도가 노골적으로 감지되었다. 와다 정무관은 이날 행사의 인사말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고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제법에 근거한 해결을 요구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으나 한국은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케시마(竹島) 문제 해결은 주권에 관한 중요한 과제다. 한국의 점거는 불법이며 용인할 수 없다”며, “일본은 국제법에 따라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의 입장에서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일방적 행보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를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도발”이라고 일축했다. 일본이 그럼에도 이런 행보를 끈질기게 반복하는 것은 독도를 국제사회에 분쟁 지역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노림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물론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본의 요구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은 일본 언론도 지적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나 ‘평화적인 분쟁 해결’ 등의 수사(修辭)를 동원해 도발을 반복하는 것은 국제 여론을 표적으로 삼는 행동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를 여론전이 통하는 무대로 간주하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진위와 관계없이 계속 반복하여 동조하는 세력을 만들어보겠다는 의도가 담긴 선전 전략이다. 실제로 일본은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홍보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미 11 개 언어로 만들어 유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시마네현(島根縣) 마쓰에시(松江市)에 있는 「다케시마(竹島) 자료실」을 시찰한 와다 정무관은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설치한 ‘영토·주권 전시관’ 방문자가 1 만 5 천명을 넘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순회 전시가 히로시마시(廣島市), 마쓰에시(松江市)에서 실현됐다며 앞으로 나가사키시(長崎市)와 사세보시(佐世保市)를 비롯해 일본의 전국 곳곳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와다 정무관은 ‘다케시마(竹島)’ 영유권을 주장하는 트위터(tweeter)에도 팔로워(follower)가 늘고 있으며 관련 인터넷 사이트(internet site)도 올해 업데이트(update)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정부가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한 것은 제 2 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직후인 2013 년 2 월부터 2021 년까지 9 년째이다. 지방 정부의 독도 도발에 중앙 정부가 동참하는 일이 아베(安倍) 정권에 이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³⁰

다시 2019 년 7 월 23 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침입 사례로 돌아오면, 일본의 일간지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은 2019 년 7 월 24 일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23 일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시마네현(島根県) 다케시마(竹島) 인근에서 러시아의 A50 조기경보통제기 1 대가 이날 오전 총 7 분간 영공을 침범했으며 한국군 전투기가 총 360 여 발의 경고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영공이라고 주장하는 공역을 러시아 군용기가 침범한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중국의 H-6 폭격기 2 대와 이 지역을 비행하던 러시아의 TU-95 폭격기 2 대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防衛省)도 23 일 러시아의 A50 이 ‘다케시마(竹島)’ 상공에서 영공을 침범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竹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도 외교적 해결을 지향한다는 입장에서 JADIZ 에서 ‘다케시마(竹島)’를 제외했다. 그래서 우리(일본) 군용기는 항상적인 영공 침범에 경고 등은 하지 않았다. 한편 방위성에 따르면 영공 침범 이전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H-6 폭격기 2 대가 JADIZ 에 들어갔고 항공자위대가 긴급 발진했다.」 고 보도하면서, 한국의 독도(獨島)를 다케시마(竹島)로, 한국의 동해(東海)를 일본해(日本海)로 표시한 지도를 게재하였다.³¹

³⁰ 이세원, <일본, 독도 분쟁화 야욕 ... ‘평화적 해결’ 허울 뒤 국제여론전>, 《연합뉴스》, 2021.2.22.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2156000073>

³¹ <露軍機に360発 竹島付近「領空侵犯、警告」>, 《毎日新聞》, 2019/7/24 東京朝刊, <https://mainichi.jp/articles/20190724/ddm/001/030/211000c>



<그림-6> 일본해(日本海)와 다케시마(竹島) 표시한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의 지도
 · 자료 출처: <露軍機に360発 竹島付近「領空侵犯、警告」>, 《毎日新聞》, 2019/7/24,
<https://mainichi.jp/articles/20190724/ddm/001/030/211000c>. <검색일자> 2022.6.3.

한편 한국의 《연합뉴스(韓聯社)》는 2019년 7월 23일 늦은 밤, 일본의 반응에 대해 좀더 자세히 보도하였다. 《연합뉴스》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했을 때 일본의 자위대 군용기가 긴급 발진했다고 23일 일본 정부가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일축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内閣官房長官)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날 오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하고 이에 한국 공군기가 경고사격을 한 것과 관련해 “자위대기의 긴급 발진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장관은 그러면서 자위대기의 비행 지역과 긴급 발진을 한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러시아 군용기가 2회에 걸쳐서 시마네현(島根縣) ‘다케시마(竹島)’ 주변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교도통신(共同通信社)》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외교 루트(route)를 통해 한국과 러시아 정부에 각각 “우리(일본) 영토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억지 주장을 하며 항의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장관은 “한국 군용기가 경고 사격을 한 것에 대해 ‘다케시마(竹島)’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고 한국에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 1 과장이 주일 한국

대사관에,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이 한국 외교부의 아시아 태평양 1 과장에게 각각 항의했으며, 일본 외무성 러시아 과장이 주일 러시아 대사관 서기관에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外務大臣)은 이날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가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무성(外務省) 관계자도 《교도통신》에 “한국이 마치 (독도가) 자국령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역지 주장을 폈다.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도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JADIZ 에는 넣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이 자위대기의 긴급 발진 사실을 공표한 것은 한국이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인근 영공 침범에 강력히 대응하자 자국 내의 여론을 고려해 이번 일을 독도 영유권 주장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공표 이유에 대해 “일본 주변을 비행한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가 같은 시간대에 보인 특이한 움직임 때문에 공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한국)의 고유영토로서 일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본 측이 외교 채널(channel)을 통해 항의해 왔으며, 우리(한국) 측은 이를 일축했다”고 보도하였다.³²

다음 날(24 일) 《연합뉴스》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KADIZ 를 침입했을 때 “한국 공군은 KF-16 8 대와 F-15K 12 대 총 20 대의 전투기를 출격 시켰고, 일본 항공자위대는 F-15J 와 F-2 등 전투기 10 여대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였다.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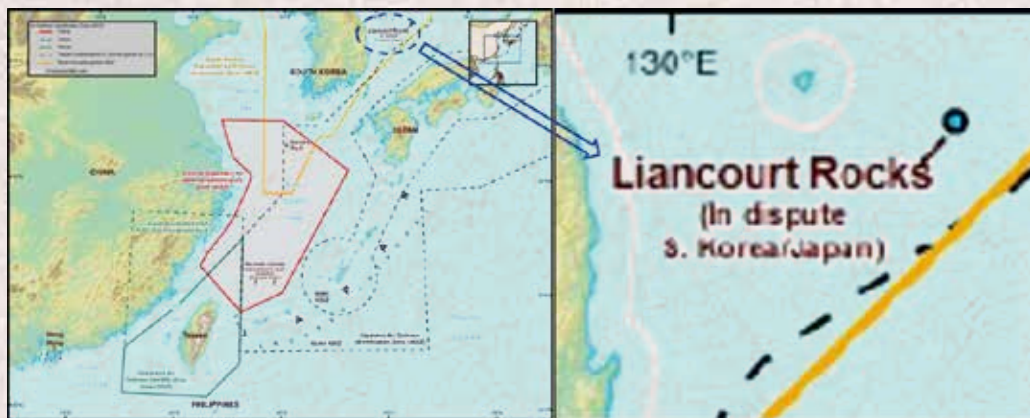
(四) 한·일 간 갈등에서 중립적 입장을 재확인한 미국

방공식별구역(ADIZ)과 관련하여 중국은 2013 년 11 월 23 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東海防空識別區)을 선포하였고, 한국은 2013 년 12 월 15 일 KADIZ 를 확장하여 발효하였다. 미국 국방부는 2014 년도 연례 중국군사력보고서(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4)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하였다. 미국 국방부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East China S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s)’이라는 이름의 지도에 중국, 일본, 대만 및 한국의 확장된 방공식별구역(ADIZ)을

³² 김병규, <日, 자위대기 긴급발진하며 “독도 우리땅” 도발 ... 韓, 일축(종합 2 보)>, 《연합뉴스》, 2019-07-23 21:17,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3125053073>

³³ 김귀근, <KADIZ, 한중일러 화약고 되나 ... 3 국 중첩 ‘이어도’ 충돌위험 상존>, 《연합뉴스》, 2019-07-24,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4037900504>

표시하였다. 아울러 독도(獨島)를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으로 표기하고 ‘한국과 일본이 분쟁 중(In dispute S. Korea / Japan)’이라는 설명을 첨부하였다.³⁴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은 1849 년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선박의 이름 ‘리앙쿠르(Le Liancourt)’에서 유래된 것이다.³⁵ 독도를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으로 표기하거나 ‘일본과 분쟁 중(In dispute S. Korea / Japan)’이라는 설명은 모두 한국 정부의 입장과 배치(背馳)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독도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영토 분쟁은 없으며, 분쟁이란 단어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림-7> 독도(獨島)를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으로 표시한 미 국방부 지도

· 자료 출처: USA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4》, p. 5. 저자가 Liancourt Rocks 부분을 확대하였고, 지도 위에 점선 원(圓)과 화살표를 첨부하였음.

한편 한·일 간에는 독도(獨島)가 위치하고 있는 동해(東海)의 표기 문제로도 갈등을 겪고 있다. 독도(獨島) 문제는 제 2 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뒤 전후(戰後)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나 동해(東海) 표기 문제는 이 보다 훨씬 오래 전의 역사에서 비롯되었다.

동해(東海) 표기 문제의 주요 원인은 1905 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을사늑약(乙巳勒約)과 1910 년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大韓帝國, 1897~1910)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한일병합조약(韓日併合條約)에서 유래한다. 이 조약이 발효된 1910 년 8 월 29 일을 한국에서는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강점하기 시작한 날로서

³⁴ United States of America,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4>, p.5.

³⁵ < Liancourt Rocks>,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Liancourt_Rocks

경술국치(庚戌國恥)라 부르고 있다.

한국의 동쪽 바다인 동해(東海)의 경우 국제적으로 일본해(日本海, Sea of Japan)로 표기되어 오고 있다. 이는 1929 년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에서 세계 해역 명칭의 통일을 위해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를 편찬하면서부터 인데, 1923 년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의 동쪽, 일본의 서쪽에 있는 해역의 이름으로 ‘일본해(Japan Sea)’를 신청하였고, 이것이 이의 없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은 1910 년 이래 일제 강점기, 즉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였고, 주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바다의 명칭을 결정하는데 관여할 수 없었다.³⁶

1974 년 국제수로기구(IHO)는 특정 바다의 인접국 간에 명칭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국 모두의 명칭을 병기(並記)하도록 권고하였고,³⁷ 한국 정부는 1997 년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처음으로 동해(東海) 표기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후 한국 정부는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의 병기(並記)를 주장하며 국제적인 외교전에 나섰다.

국제적으로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 표기율은 2000 년대 초반까지 2%에 불과했지만 한국 정부와 민간이 외교전을 벌인 결과 최근 조사에서는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³⁸ 또한 전자해도(지도) 등이 보편화 되면서 일본을 제외한 G7 국가에서는 병기 비율이 50.4%를 넘어서는 증가추세에 있다는 보고도 있다.³⁹

³⁶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https://www.mofa.go.kr>), <동해(East Sea) 표기의 정당성>, https://www.mofa.go.kr/www/wpge/m_3838/contents.do

³⁷ <동해/명칭 문제>, 나무위키(namu.wiki),

<https://namu.wiki/w/%EB%8F%99%ED%95%B4/%EB%AA%85%EC%B9%AD%20%EB%AC%B8%EC%A0%9C>

³⁸ <日 “우리가 이겼다”...IHO, 동해·일본해 대신 고유번호(종합)>, 《서울신문》, 2020.11.1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17500129>

³⁹ 양정승, <국제수로회의와 ‘동해’ 표기 논쟁>, 《KIMS Periscope 제 84 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홈페이지, <https://kims.or.kr/issubrief/kims-periscope/peri84/>



The World Almanac and Book of Facts 2014
World Almanac Books, 2014



The Times Complete History of the World
Times Books, 2004

<그림-8>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병기(並記)한 지도의 예

· 자료 출처: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https://www.mofa.go.kr>), 《동해표기 홍보 브로슈어(brochure)》, p. 8. https://www.mofa.go.kr/www/wpge/m_3838/contents.do <검색일자> 2022.6.3.

한편, 중국이 동중국해방공식별구역(東海防空識別區)을 발표하기 2 년 전인 2011 년, 미국 국무부는 ‘동해(East Sea)’ 표기 문제와 관련하여 미 연방정부 기관인 미국지명위원회(United States Board on Geographic Names, BGN)의 표기 방침에 따라 ‘일본해(Sea of Japan)’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2011 년 8 월 8 일의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국제수로기구(IHO)에 제출했다는 한국 언론 《연합뉴스(韓聯社)》 기사에 대한 논평을 요구 받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기인 ‘일본해(Sea of Japan)’를 우리(미국) 역시 사용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해(Sea of Japan)’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미국 국무부의 입장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미국지명위원회(BGN)에 의해 결정된 표기들을 사용한다”며 미국지명위원회(BGN)의 기준에 맞는 표기가 ‘일본해(Sea of Japan)’임을 재확인했다.⁴⁰

다시 2019 년 7 월 23 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침입 사례로 돌아오면, 한국의 독도(獨島) 영유권과 동해(East Sea) 표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는 크게 변화된 것이 없었다. 당시 취재를 담당했던 《연합뉴스》 기자는 「미국 국방부는 7 월 23 일(현지시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領空, air space) 침범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데이브 이스트번(David-W.-Eastburn)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침입 및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⁴⁰ 이우탁, <미국무부, ‘일본해’ 단독 표기 입장 밝혀>, 《연합뉴스》, 2011-08-09.
<https://www.yna.co.kr/view/AKR20110809007800071>

서면(書面)으로 문자, 동맹(同盟)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밝히며 이렇게 답했다. 이스트번(Eastburn) 대변인은 “미국 국방부는 동맹(同盟)인 한·일과 이번 사안에 대해 긴밀히 조율을 하고 있으며 그들(한·일)이 중·러 카운터파트(counterparts)와 외교 채널로 후속 조치를 함에 따라 움직임들을 계속 모니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동맹(同盟) 방어를 위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스트번(David-W.-Eastburn) 대변인은 어느 국가의 영공(領空, air space)에 대한 침범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영공 침범’이라고만 표현했다. 영공 침범의 주체에 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지목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미국이 러시아 군용기에 대한 한국의 경고 사격은 물론 일본의 자위대 군용기 긴급 발진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고 보도하였다.⁴¹

반면, 다음 날인 7 월 24 일(미국 현지시간) 마크 에스퍼(Mark Esper)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인근 한국 영공 침범과 관련하여 ‘한국 영공(South Korean airspace)’이었다고 말면서 한·일 방문 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 일본이 “우리(일본) 영토”라며 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출격 시켰던 상태에서 미국 국방부 장관의 ‘한국 영공(South Korean airspace)’ 발언은 한국 언론에 대단한 주목을 받았다. 《연합뉴스》는 이에 대해 「전날 美 의회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된 에스퍼(Esper) 장관은 이날(24 일)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해(Sea of Japan)’에 있는 섬(島)에서 있었던 러시아 군용기의 침범에 대해 우리에게 줄 정보가 있는가? 그 침범에 한국 전투기들이 출격했다’는 질문을 받고 “내가(Esper) 기억하는 한 러시아 군용기가 그 지역으로, 남쪽으로 비행한 것은 새로운 사실은 아니며, 그들이 한국 영공(South Korean airspace)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새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가 한국의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독도를 ‘일본해에 있는 섬(島)’으로 지칭하며 한 질문에 대해 ‘한국 영공(South Korean airspace)’이라고 답변한 것이다. (중략) 미국 국방부는 지난 23 일 어느 국가의 영공에 대한 침범인지에 대해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이날 기자들이 ‘당신(에스퍼 장관)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계획인데, 일본은 한국 전투기의 경고 사격에 대해 비난을 하고 있다. 이 사안이 (한·일) 양국 및 미국과의 관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에스퍼 장관은 “내가 태평양 지역으로 가서

⁴¹ 백나리, <美 “중러 영공침범 한일 대응 강력 지지 ... 동맹 한일과 긴밀 조율”>, 《연합뉴스》, 2019-07-24.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4002500071>

그들(한·일)을 만나게 되면, 이것은 내가 그들과 논의하고자 하는 사안들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하였다.⁴²

그러나 7 월 25 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다시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인근 한국 영공 침범과 관련하여 모건 오테이거스(Morgan Ortagus)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마크 에스퍼(Mark Esper) 신임 국방부 장관의 전날 발언을 참조하라고 언급했다. 다만 오테이거스(Ortagus) 대변인은 한 기자가 ‘최근 러시아 군용기가 KADIZ 에 침입했다’며 입장을 묻자 “일본은 당신이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 문제 삼을 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는 일본 정부가 ‘우리(일본) 영토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⁴³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2019 년 8 월 22 일 한국 정부는 매년 연장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⁴⁴ 을 연장 없이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이것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시행하면서 그 근거로 한국을 ‘안보부문에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적시(摘示)했기 때문이다.⁴⁵ 이는 비밀(秘密)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한·일 GSOMIA》를 사실상 일본 정부가 먼저 종료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3 일 후인 2019 년 8 월 25 일 한국군은 독도를 포함한 동해를 수호하기 위한 입체적 훈련에 돌입했다. 한국 해군은 이날 “세종대왕함(DDG-991) 등 해군·해경 함정 10 여 척과 육·해·공군 항공기 10 대 그리고 육군 및 해병대 병력까지 참가하는 ‘동해영토수호훈련’을 26 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 해군은 “우리 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훈련의 의미와 규모를 고려, 이번 훈련 명칭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정했다”고 설명하고, 아울러 “이번 훈련은 특정 국가나 특정 세력이 대상이 아닌, 우리의 주권, 영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거나

⁴² 송수경, <미국방 “러, 한국 영공으로 넘어가” ... 침범 대상 ‘韓 영공’ 적시(종합)>,

《연합뉴스》, 2019-07-25.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5036251071>

⁴³ 송수경, <미국무부 “러, 한국 영공 침범은 도발적 행위 ... 반복 않기를”>, 《연합뉴스》, 2019-07-26.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6035900071>

⁴⁴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秘密軍事情報の保護に関する日本国政府と大韓民国政府との間の協定,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별칭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일본어: 日韓秘密軍事情報保護協定)》 또는 줄여서 《한일 지소미아(韓日 GSOMIA)》라고 한다.

⁴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홍현익,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대한민국의 과제>, 2019.08.26. <https://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64020>

침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훈련”이라고 덧붙였다.⁴⁶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즉각 훈련 중지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훈련이 시작된 8 월 25 일 도쿄와 서울의 외교경로를 통해 “다케시마(竹島)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한국 해군의 이번 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또한 “극히 유감”이고 “훈련 중지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항의했다.⁴⁷

한편 미국 국무부는 8 월 27 일(미국 현지시간) 한국의 독도방어훈련을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과 관련하여 “양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또한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의 영유권에 관해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며, 한국과 일본이 평화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로이터(Reuters) 통신은 독도방어훈련과 관련하여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이 훈련이 특별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찾지 못했다” (중략) “이는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 행동들이다. 단지 그것을 악화시킨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⁴⁸



<그림-9> 한국 해군 특수전 전단(UDT) 장병들의 ‘동해영토수호훈련’

· 자료 출처: 대한민국 國防日報 홈페이지(<https://kookbang.dema.mil.kr/>), <軍, 동해 영토수호훈련 돌입>, 2019.08.25.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190826/17/BBSMSTR_000000010021/view.do

<검색일자> 2022.6.3.

⁴⁶ 맹수열, <軍, 동해 영토수호훈련 돌입>, 《국방일보(國防日報)》, 2019.08.25.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190826/17/BBSMSTR_000000010021/view.do

⁴⁷ 김병규, <日, 한국 독도 방어훈련 중지 요구 ... “日 고유영토” 도발(종합)>, 《연합뉴스》, 2019-08-25.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5024252073>

⁴⁸ 류지복, <美, 독도방어훈련에 “한·일 문제 해결에 비생산적”>, 《연합뉴스》, 2019-08-28.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8008800071>

1986년 한국 해군 단독의 독도방어훈련으로 시작된 ‘동해영토수호훈련’은 1996년부터 공군과 해경도 참여하고 있다. 훈련 횟수는 2003년부터 매년 전·후반기 등 2차례로 정례화되었으며, 2021년도 전반기 훈련은 6월에 실시되었다. 그리고 12월에 실시된 후반기 훈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세 등을 감안하여 해군·해경 함정과 공군 전력 등의 실기동훈련(Field Training Exercise, FTX)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연습(Command Post Exercise, CPX)으로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군의 12월 ‘동해영토수호훈련’이 보도되자 예년과 마찬가지로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하였다.⁴⁹

4. 중·러 군용기의 KADIZ 침입이 야기한 문제들의 봉합

이번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중·러 군용기의 KADIZ 침입이 야기한 문제들이 이후 어떻게 봉합(縫合)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해결(解決)이라 쓰지 않고 봉합(縫合)이라 표현한 것은 야기된 문제들 중 어느 하나도 완전하게 해결된 것이 없고, 그 중 일부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일단락(一段落)되었기는 하나 여건이 조성되면 언제든지 다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一) 한·중 군사 직통전화 추가 개설 합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친중(親中)’ 논란을 일정 부분 가중시킨 중국 군용기의 KADIZ 침입은 2021년 3월 2일 한국과 중국 군사 당국 간 직통전화를 추가로 개설하기로 합의하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다.

한국 국방부는 이와 관련하여 언론 보도자료를 내놓았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는 2021년 3월 2일(화) 한·중 국방부간 직통전화를 통해 중국 국방부와 제 19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는 1995년 최초 개최,
18차 회의는 2020년 1월 서울에서 개최

양측 수석대표로 우리(한국) 측은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중국측은 송연차오(宋延超) 국방부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이 참석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안보정세와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⁴⁹ <軍 “동해영토수호훈련,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 《동아일보》, 2021-12-30.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1230/111016553/1>

회의에서 올해 국방분야 지도자 상호방문 등 고위급 인사교류, 국방정례협의체 및 부대·교육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활성화와 양국 간 군사적 신뢰 관계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책실무회의에 이어서 중국 츠궈웨이(慈國巍) 주임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은 《한·중 해·공군 간 직통전화 양해각서》 개정안에 서명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양국 ‘해·공군 간 직통전화 추가 개설’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최초 《한·중 해·공군 간 직통전화 양해각서》 : 2008 년 11 월 체결

* 한·중 해·공군간 직통전화 개설 현황:

·(기존) 한국 해·공군 ↔ 중국 북부전구 해·공군

·(추가) 한국 해·공군 ↔ 중국 동부전구 해·공군

* 개정안 서명권자: (한국)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

(중국) 慈國巍 국방부 국제군사협력판공실 주임

이번 양해각서 개정은 한·중 군사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여 공중 및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고 군사적 신뢰를 한 단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방식을 통해 국방 당국간 소통을 지속해오고 있는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올해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각급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⁵⁰

한국 국방부 언론 보도자료를 인용한 한국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 중국 군사 당국 간에는 기존 국방부 간 직통전화와 한국 해·공군과 중국 북부전구 해·공군 간 직통전화 등 총 3 개의 핫라인이 있었다. 중국 동부전구 해·공군과의 직통전화는 추가로 개설되면 양국 군사 당국 간 직통전화는 5 개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한·중 군사 당국 간 소통을 강화해 공중·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고 군사적 신뢰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작년(2020 년) 12 월 22 일 중국 군용기 4 대와 러시아 군용기 15 대가 이어도(離於島)와 독도(獨島) 인근 KADIZ 에 진입했을 당시 중국은 한·중 핫라인을 통해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사전 통보한 바 있다. 비행정보 교환을 위한 직통전화는 없는 러시아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⁵¹

⁵⁰ 대한민국 국방부 보도자료(mnd.go.kr), <제 19 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 개최>, 2021-03-02.

https://www.mnd.go.kr/user/newsInUserRecord.action?siteId=mnd&page=47&newsId=I_669&newsSeq=I_12413&command=view&id=mnd_020500000000&findStartDate=&findEndDate=&findType=title&findWord=&findOrganSeq=

⁵¹ 유현민, <한중 군사 핫라인 추가 개설키로 ... 기존 3 개→5 개로 증가>, 《연합뉴스》, 2021-03-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2170000504>

(二) 한·러 양국 해·공군 간 직통망 설치 양해각서 체결

독도 영공 침범으로 되살아난 러시아의 위협은 2021년 11월 11일 한국과 러시아 군사 당국이 양국 《해·공군 간 직통망 설치·운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국방부는 이와 관련하여 언론 보도자료를 내놓았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과 러시아는 2021년 11월 11일 양국 《해·공군 간 직통망 설치 및 운용과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한·러 해·공군 간 직통망:

- 한국해군 해군작전사령부 ↔ 러시아 태평양함대사령부
- 한국공군 제1중앙방공통제소 ↔ 러시아 동부군관구 11항공 및 방공군 간 설치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국 측에서 김상진 국제정책관이, 러시아 측은 국가방위센터 부센터장인 칼가노프 소장이 서명하였다. 지난 2002년 11월 11일 양국 정부 간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을 체결한 이후 양국 국방 당국 간 직통망 설치에 관한 협의가 시작되었으며, 올해 전반기 양측은 관련 양해각서 문안에 합의 한 이후 오늘 최종 서명하게 되었다. 이번 한·러 해·공군 간 직통망 양해각서 체결은 한·러 군사당국 간 신뢰를 강화함과 동시에 소통을 강화하여 공중·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역내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한·러 양국은 이번 해·공군 간 직통망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가 실제 양국 군간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통망 운용과 관련된 세부절차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였다.」⁵²

한국 국방부 언론 보도자료를 인용한 한국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번 직통망은 한국 해군작전사령부와 러시아 태평양함대사령부 간, 한국 공군 제1중앙방공통제소와 러시아 동부 군관구 11항공·방공군 간에 올해(2021) 안에 각각 설치될 예정이다. 한·러 군 당국 간 핫라인 설치는 2002년 관련 논의를 처음 시작한 뒤 거의 20년 만에 제도적 결실을 봤다. 국방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러 군사당국 간 신뢰와 소통을 강화해 공중·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역내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도

⁵² 대한민국 국방부 보도자료(mnd.go.kr), <한·러시아 해·공군 간 직통망 양해각서 체결>, 2021-11-11.

https://www.mnd.go.kr/user/newsInUserRecord.action?siteId=mnd&page=19&newsId=I_669&newsSeq=I_12691&command=view&id=mnd_020500000000&findStartDate=&findEndDate=&findType=title&findWord=&findOrganSeq=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軍 당국은 특히 이번에 러시아와의 공군간 직통전화 설치를 통해 KADIZ 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작년(2020 년) 12 월 22 일 중국 군용기 4 대와 러시아 군용기 15 대가 이어도(離於島)와 독도(獨島) 인근 KADIZ 에 진입했을 당시 중국은 한·중 핫라인을 통해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사전 통보했지만, 비행정보 교환을 위한 직통전화가 없는 러시아는 우리 측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⁵³

(三)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9 년 8 월 22 일 한국 정부가 《한·일 GSOMIA》의 연장 종료를 결정했던 주요 원인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시행하면서 그 근거로 한국을 ‘안보부문에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적시(摘示)했기 때문이다. 다만 2019 년 7 월 23 일 중·러 군용기의 KADIZ 침입을 계기로 일본이 다시 한 번 독도(獨島) 영유권을 주장하였고, 이것이 한국 국민들의 반일(反日) 감정을 자극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좀더 쉽게 《한·일 GSOMIA》의 연장 종료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한·일 GSOMIA》 연장 종료 결정이 있는 지 3 개월이 지난 2019 년 11 월 22 일, 한국 정부는 《한·일 GSOMIA》 연장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 결정은 11 월 23 일 0 시 《한·일 GSOMIA》의 실질적인 연장 종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내려졌다.⁵⁴ 이러한 가운데 《연합뉴스》는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가 연장 종료 ‘정지’와 관련하여 측근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11 월 24 일 《한·일 GSOMIA》 연장 종료 정지 직후 아베 총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는 이야기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이 GSOMIA 유지를 한국에 강하게 요구했으며, 일본도 이런 미국을 지원했다”며, “미국이 일본에게 협정 종료를 피하기 위한 대응을 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중략) 산케이신문(産経新聞)은 전날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가 “거의 이쪽(일본)의 퍼펙트게임(perfect game)이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는 내용을

⁵³ 김용래, <한·러 해·공군, ‘핫라인’ 설치한다 ... “우발적 충돌 예방”(종합)>, 《연합뉴스》, 2021-11-11.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1108351504>

⁵⁴ 서해림, <정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 WTO 제소 중단(종합)>, 《연합뉴스》, 2019-11-22.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2140651001>

보도하였다.⁵⁵

2021년 10월 21일 한국의 서욱(徐旭)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일 GSOMIA가 “작동하고 있다”면서 한·일 간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늘 인접 부대처럼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본측) 요청에 의해서 (사후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⁵⁶ 이는 《한·일 GSOMIA》가 연장되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윤석열(尹錫悅) 야당 후보가 당선되고 정부가 구성된 후 최근 박진(朴振) 외교부 장관이 한·일 GSOMIA가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되길 희망한다고⁵⁷ 발언한 것을 볼 때 그렇게 원활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四) 남겨진 문제들

중·러 군용기의 KADIZ 침입이 야기한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첫째, 중·러 군용기가 여전히 KADIZ를 침입하고 있다. 2021년 11월 19일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7대가 동해 독도 북동쪽 KADIZ를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우리 군은 한·중 직통망을 통해 중국 측으로부터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⁵⁸ 윤석열(尹錫悅) 정부가 들어선 후 2022년 5월 24일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독도 동북방 KADIZ를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 합동참모본부는 “KADIZ 진입 이전부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하여 우발 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⁵⁹ 그러나 이때 한·중 군사당국 간 직통망을 사용했는지 여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둘째,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尹錫悅)

⁵⁵ 김병규, <아베 “일본은 아무런 양보 안했다”... 산케이 “퍼펙트 게임”(종합)>, 《연합뉴스》, 2019-11-24.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4016251073>

⁵⁶ 박성진, <서욱 “북 SLBM, 요격가능한 초보단계 ... 피해 있어야 도발”>, 《경향신문》, 2021.10.21. <https://www.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110211531001>

⁵⁷ 김효정, <박진 “지소미아 정상화 희망”에 日 “지역 평화·안정에 기여”(종합 2보)>, 《연합뉴스》, 2022-06-14.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4066752073?section=international/all>

⁵⁸ 권혁철, <중·러 군용기 9대, 독도 근처 카디즈 무단진입>, 《한겨레》, 2021-11-19.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20049.html>

⁵⁹ 정빛나, <[2보] 중·러 군용기 무더기 카디즈 침범 ... “독도 인근 진입후 이탈”>, 《연합뉴스》, 2022-05-24.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4154751504>

정부가 들어선 후 2022 년 5 월 28 일 한국의 국립해양조사선이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해 해양조사를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하야시(林芳正, Hayashi Yoshimasa) 일본 외무상은 “우리나라(일본)의 사전 동의 없는 과학적 해양 조사 실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면서 “(일본) 정부는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낸다는 결의로 국제법과 관련 국내법에 따라 앞으로도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⁶⁰

셋째, 독도(獨島) 영유권에 대한 미국 정부의 중립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2021 년 11 월 24 일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의 영유권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 영유권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⁶¹

5. 결론(結語)

지금까지 2019 년 7 월 23 일 중·러 군용기의 KADIZ 침입이 어떠한 문제들을 야기하였고 또 그 문제들이 어떻게 봉합(縫合)되었고 남겨진 문제들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제 중·러 군용기의 KADIZ 침입이 야기한 문제들이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019 년 7 월 23 일 중·러 군용기의 KADIZ 침입은 한국 국내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친중(親中)’ 논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고,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함에 따라 그동안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한시해왔던 러시아의 위협을 다시 한 번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F-15J와 F-2 전투기를 출동시킴으로써 한국의 F-15K와 KF-16을 상대로 공중전을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연출하였다. 물론 실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미국은 ‘일본해(Sea of Japan)의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상공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간 무장 충돌에 대해 중립을 지킬 것이며, 어쩌면 한국보다는 일본을 좀더 지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였다. 결국 한·미와 미·일 간에는 각각 군사동맹이 가능하지만 한·미·일 3 각 안보 협력은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말았다.

반면 KADIZ 침입의 중심에 있던 중국은 KADIZ를 ‘침범’했다는 지적에 대해

⁶⁰ 김호준, <韓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日 “중지하라” 또 억지(중합 2 보)>, 《연합뉴스》, 2022-05-31. <https://www.yna.co.kr/view/AKR20220531019152073>

⁶¹ 백성원, <국무부, ‘독도 미국 책임론’ 부인 ... “한일 간 문제”>, 《VOA 뉴스》, 2021.11.25. <https://www.voakorea.com/a/6326713.html>

“중국과 한국은 좋은 이웃으로 ‘침범’이라는 용어는 조심해서 써야 한다”고 점잖게 훈계하는 모습을 보인 후 한·일 간의 첨예한 대립과 미국의 모호한 태도를 지켜보며 한·미·일 3 각 안보 협력의 취약점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확인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은 의도하지는 않을지라도 어부지리(鷸蚌相爭, 漁翁之利)를 한 셈이 되었다.

한국에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鯨魚爭鬥, 蝦米受傷)’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지나온 역사 속에서 약소국 한국은 강대국 고래들의 싸움에 끼인 새우처럼 언제나 피해를 봤다는 교훈을 말할 때 종종 사용된다. 따라서 중·러 군용기의 KADIZ 침입이 야기한 문제들이 주는 시사점은 한국이 가능한 빨리 고래가 되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鯨魚爭鬥, 蝦米受傷)’는 역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은 경제력, 소프트파워(Soft power), 군사력 등 다양한 수단을 결합하여 계속해서 몸집과 근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한국이 고래가 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희망찬 전망과 메시지(message)를 소개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2021 년 7 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하였다.⁶² 2021 년 12 월 일본경제연구센터(Japan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JCER)는 1 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2027 년에는 한국이, 이듬해인 2028 년에는 대만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⁶³

“한국은 더 이상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다.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역할을 할 제 3 의 고래가 되었다” 영국의 저명한 대학교 킹스칼리지런던(King's College London, 倫敦國王學院) 국제관계학과 교수인 라몬 파체코 파르도(Ramon Pacheco Pardo) 교수는 최근(2022 년 5 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서를 영국에서 출판하였다. 저서의 제목은 《새우에서 고래로: 잊혀진 전쟁에서 K-Pop 까지의 한국(Shrimp to Whale: South

⁶²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내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 느낀 이유>, 2021.07.14.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89972>

⁶³ 박세진, <“2027 년에 한국이 1 인당 명목 GDP 일본 추월”> <일본 싱크탱크>, 《연합뉴스》, 2021-12-16.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6032400073>.

2022 년 5 월 5 일 대만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대만의 1 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jnbi100@yna.co.kr, <차이잉원 “1 인당 GDP 한국 추월할 듯 ... 대만인 노력한 결과”>, 《연합뉴스》, 2022-05-05.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5040900009>

Korea from the Forgotten War to K-Pop)》이다. 라몬 파체고 파르도 교수는 “한국이 경제력, 소프트파워(Soft power), 군사력 등 다양한 수단을 결합하여 계속 몸집과 근력을 키워 나가야한다”며, “앞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이 터지는 게 아니라 양쪽이 서로 눈독을 들이면서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좋은 패’를 쥐게 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책 말미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고 썼다. “밝은 미래가 한국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은 이미 제자리를 찾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자리를 다져나갈 것이다.”⁶⁴ //끝//

⁶⁴ 윤희영, <[윤희영의 News English] “등 터지던 새우에서 고래가 된 한국”>, 《朝鮮日報》, 2022.05.17.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2/05/17/KXRFZS2QABAJNL4PYNKRSG4CE/. 윤희영, <[E] “등 터지던 새우에서 고래가 된 한국”>, 《프리미엄조선》, 2022.05.17.
<https://contents.premium.naver.com/chosun/home/contents/220517064020534uE>

